

광주시청 김국영·강다슬 100m 네번째 동반 우승

전국실업육상 챔피언십 초대 챔피언 트랙 비에 져서 좋은 기록 안나와 목포시청 박서진 해머던지기 우승

대한민국 육상 100m 남녀 간판 김국영과 강다슬(광주시청)이 전국대회에서 네번째 나란히 우승을 차지했다. 김국영(31)과 강다슬(30)이 지난달 30일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농민사랑@2022 전북익산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 챔피언십대회 남녀 100m에서 초대 챔피언이 됐다. 이들은 지난 3월 제26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4월 제51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5월 2022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 이어 네번째 정상을 차지했다. 한국 신기록(10초07) 보유자인 김국영의 기록 단축여부가 관심을 모았으나 곳은 날씨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록이 저조했다. 김국영은 남자 100m 결승에서 10초41로 우승했다. 김태호(29·파주시청)가 10초49로 2위, 이정태(26·안양시청)가 10초54로 3위를 기록했다. 강다슬은 여자 100m에서 11초99로 우승했다. 그는 지난 5월 2022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출전 이후 엉덩이 쪽에 통증을 느껴 실전에서 고전했으나 이번 대회에서 주변의 우려를 털어냈다. 이현희(25·SH공사)가 12초13으로 2위, 12초26의 김다운(19·가평군청)이 12초26으로 3위를 차지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김국영 선수는 컨디션이 좋으니까 바람도 나쁘지 않았는데 트랙이 비에 젖어 기록이 좋지 않아 아쉽다"며 "전국체전에서는 좋은 기록을 세울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컨디션 유지에 신경쓰는 등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머던지기 여자 결승에서는 목포시청 박서진(29)이 59m82로 우승했다. 김윤서(대전시청)가 54m18로 2위, 김휘수(음성군청)가 54m14로 3위를 차지했다. 박서진은 1차에서 51m01을 기록한 뒤 2차에서 55m49를 던져 일찌감치 1위를 예약했다. 3차에서 55m49를 기록한 박서진은 4차에서 59m82를 기록하며 경기를 마쳤다. '한국형 다이아몬드리그'로 불리는 이 대회는 총 5개 대회를 시리즈로 치러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국내 최초 왕중왕전 형태로 진행됐다. 올해 제주, 나주, 익산, 고성에서 열린 KTFL 시리즈 대회 성적과 전국 종별 육상선수권을 종합해 총 5개 대회의 기록을 바탕으로 상위권의 선수들만 출전했다. 이번 대회 단거리(남녀 100m, 200m, 400m 허들, 여자 100m 허들, 남자 110m 허들), 중·장거리(남녀 800m, 1500m, 5000m, 3000m 장애물), 도약(남녀 멀리뛰기, 세단뛰기,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투척(남녀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해머던지기) 부문 1위에게 상금 400만원, 2위는 200만원, 3위는 100만원을 받는다. 부문별 순위는 세계육상연맹 스포어링 테이블로 계산한 포인트로 정한다. 더 좋은 기록으로, 종목별 1위를 차지한 선수가 더 높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전체 종목에서 가장 높은 포인트를 받은 선수는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돼 MVP 상금 2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대회는 1일까지 열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다시 유지에 신경쓰는 등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머던지기 여자 결승에서는 목포시청 박서진(29)이 59m82로 우승했다. 김윤서(대전시청)가 54m18로 2위, 김휘수(음성군청)가 54m14로 3위를 차지했다. 박서진은 1차에서 51m01을 기록한 뒤 2차에서 55m49를 던져 일찌감치 1위를 예약했다. 3차에서 55m49를 기록한 박서진은 4차에서 59m82를 기록하며 경기를 마쳤다. '한국형 다이아몬드리그'로 불리는 이 대회는 총 5개 대회를 시리즈로 치러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국내 최초 왕중왕전 형태로 진행됐다. 올해 제주, 나주, 익산, 고성에서 열린 KTFL 시리즈 대회 성적과 전국 종별 육상선수권을 종합해 총 5개 대회의 기록을 바탕으로 상위권의 선수들만 출전했다. 이번 대회 단거리(남녀 100m, 200m, 400m 허들, 여자 100m 허들, 남자 110m 허들), 중·장거리(남녀 800m, 1500m, 5000m, 3000m 장애물), 도약(남녀 멀리뛰기, 세단뛰기,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투척(남녀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해머던지기) 부문 1위에게 상금 400만원, 2위는 200만원, 3위는 100만원을 받는다. 부문별 순위는 세계육상연맹 스포어링 테이블로 계산한 포인트로 정한다. 더 좋은 기록으로, 종목별 1위를 차지한 선수가 더 높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전체 종목에서 가장 높은 포인트를 받은 선수는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돼 MVP 상금 2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대회는 1일까지 열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국영(왼쪽)과 강다슬이 지난 30일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농민사랑@2022 전북익산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 챔피언십대회 남녀 100m에서 역주하고 있다. <한국실업육상연맹 제공>



여주시청 이광희 전국유도선수권 '금 메치기'

같은 팀 김성훈은 동메달

여주시청 유도팀 이광희(25)와 김성훈(28)이 2022 동트는 동해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에서 금·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유도회(회장 임종안)에 따르면 이광희와 김성훈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강원도 동해에서 개최된 이 대회 -81kg 급, -90kg급 결승에서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냈다. 이광희는 남자부 8강전에서 이상준(양평군청)을 어깨메치기 절반승으로 제압하고 준결승에 진출해 김영재(광주시체육회)를 한팔 업어치기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는 이종승(인천시청)에 지도 3개를 따내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성훈은 8강에서 김유철(용인시청)에게 모로 돌리기 한판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올랐으나 송민기(용인시청)에 패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장원 여주시청 감독은 "훈련에 매진해 오는 10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여주시청 유도팀. <여주시청 제공>

AI페퍼스, 지역 유소년 배구 발전 앞장

순천대석초와 업무협약

AI페퍼스프로 배구단이 전남지역 배구 활성화에 나섰다. AI페퍼스 배구단은 "배구 저변 확대와 유소년 배구 발전을 위해 순천대석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지난 7월 연구자인 광주지역 조선대과 MOU 이후 두 번째다. 순천대석초와 협약은 연구지에 머물지 않고 유소년 배구 발전과 배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구단의 의지를 실천한 것이다. 협약식에는 김동연 AI페퍼스 단장과 허관태 순천대석초 교장 등이 참석했다. AI페퍼스는 지난 8월 초부터 매주 일요일 순천대석초 체육관에서 순천지역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유소년 배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AI페퍼스에서 은퇴한 최민지 전력분석관 등 프로배구 선수 출신 강사들이 현장 지도를 맡고 있다. AI페퍼스는 최근 2022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경기에 유소년 배구교실 학생들을 초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창단한 AI페퍼스는 지난 3월 광주지역



김동연 AI 페퍼스 단장(사진 왼쪽)과 허관태 순천대석초 교장이 최근 배구 저변확대와 유소년 배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AI페퍼스 제공>

유소년 배구교실을 시작했다. 5월에는 제1회 AI페퍼스배 유소년 배구대회를 개최하고 8월에는 순천지역에서 유소년 배구교실을 확장 운영하고 있다. 김동연 AI 페퍼스 단장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 배구 꿈나무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전남의 신규 지역을 선정해 유소년 배구교실을 추가 확장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안세영, 4일 만에 출전한 국제대회 쾌조의 출발

일본 오픈 배드민턴선수권 오호리 2-0 완파 16강 진출

지난주 세계개인선수권에서 아쉬운 동메달에 머문 배드민턴 여자단식 안세영(20)이 4일 만에 다시 출전한 국제대회서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 안세영은 지난 31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22 일본 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단식 32강전에서 일본의 오호리 아야를 2-0(21-16 21-15)로 제압하고 16강에 진출했다.

지난 27일 세계개인선수권 4강전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에게 패해 결승 진출이 좌절됐던 안세영은 이번 대회서 일본 오픈 첫 우승을 노린다. 1세트 시작과 함께 8-1로 크게 앞선 안세영은 오호리의 끈질긴 추격에 19-16, 3점 차까지 추격을 허용했지만 침착하게 2연속 득점으로 1세트를 마무리했다. 2세트에선 8-6에서 6연속 득점으로 승기를 잡은 뒤 안정적인 수비 전략으로 별다른 위기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야마구치도 16강 진출을 확정하면서 이번

대회에서 일주일 만에 안세영과 야마구치의 재대결이 펼쳐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대회 대진 상 두 선수가 모두 결승에 진출해야만 맞대결이 이뤄진다. 이어 열린 여자복식 32강전에서는 정나은(22)-김혜정(24)이 세계 랭킹 5위인 일본의 마사야마 나미-시다 치하루를 2-0(23-21 21-17)으로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남자복식에선 최승규(27)-김원호(23)도 인도팀에 승리하며 16강에 오른 반면, 강민혁(23)-서승재(25)는 32강전에서 탈락했다. 한편 개인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혼합복식 고성현(35)-엄혜원(31)은 일본팀을 꺾고 16강에 올랐다. /연합뉴스

10월 전국체전 역대 최다 선수단 2만7000여명 참가

10월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 역대 대회 중 가장 많은 2만7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대한체육회는 25일까지 올해 전국체전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와 임원 총 2만7606명이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선수가 1만8769명(남 1만2006명·여 6763명), 임원은 8837명이다. 체육회에 따르면 이는 역대 전국체전 선수단 최대 규모다.

체육회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정상적으로 개최한 제100회 대회(2019년·2만4988명)와 비교해도 약 11% 증가했다"며 "3년 만의 정상 개최라는 선수단의 기대와 합기도, 축구 종목의 신규 도입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전국체전 운영 설명과 대진 추첨을 위한 시도 대표자 회의도 비대면으로 진행된 지난해와 달리 9월 1일 울산 문수체육관에서 대면 형식으로 열린다. 올해 전국체전은 10월 7~13일 울산광역시 일원 73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헌트
2관	헌트
3관	육사오(6/45)
4관	육사오(6/45)
5관	리미트
6관	육사오(6/45)
9관	한산: 용의 출현
7관 씨네캐플	탐건: 매버릭, 불릿 트레인, 미니언즈2, DC 리그 오브 슈퍼-팻
8관 씨네캐플	헌트, 비상선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포시즌 실내악 시리즈 II
2인 가극 아파르트
Chamber Series
2022. 9. 19. ~ 2030 | 광주 공연장
문의: 062-613-8235

광주국악상설공연
2022-9-1
일시: 2022. 9. 1.(목) - 9. 30.(금)
매주 수-일 17:00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 8372